

GLP 2025 S : Technical University Graz

2020-12902 재료공학부 김지환

1. 지원동기

졸업학년이 되기전, 진로에 대한 막연한 고민이 컸고 학교에 있는 동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경험해볼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GLP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장학혜택을 얻어 해외에서 큰 경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 입국 전 준비사항

1) 기숙사

현지 학생들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집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기숙사에 비해 훨씬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기에 기숙사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대학교와 다르게, 그라츠 현지에서는 대학교내에서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데, 당연히 학교내부에 있지도 않습니다. Graz 시내에서도 단과대별로 건물들이 따로따로 분포되어있는데, 기숙사 또한 그렇습니다. (업체로는 OEAD, STUWO, WIST 등이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기전 개인적으로 해당 기숙사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방을 구하시면 됩니다(오스트리아 현지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바로바로 일처리 해주지 않습니다. 최대 1주~2주 소요될수도 있으니 꼭 미리 연락하세요. 이 부분은 후술할 비자와도 관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르게 연락하여 싸고 좋은 방을 인원이 차기전에 잡으시길 바랍니다.)

OEAD 기숙사를 고르는 것이 제일 깔끔하고 부담되지 않는 선택지입니다.(다만 가격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였던곳은 moserhofgasse OEAD 기숙사 1인실로, 큰 창과 개인욕실, 책상, 개인 주방 등이 있고 2주마다 cleaning lady 께서 방을 청소해줍니다. 지하에 세탁실도 있고, 가장 좋은 점은 학교와 매우 가깝습니다. 이곳 말고도 steyrergasse 도 추천드릴만한 선택지입니다. 1인실 말고도 moserhofgasse 에선 2인실을 제공하는데, 주방과 욕실을 공유하며 열쇠로 각자의 방을 닫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동성과 방을 쓸 확률이 높으므로, 타국 친구들과 욕실 및 주방을 공유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면 2인실도 좋은 선택지로 추천드립니다.

다만, 현지에서는 자동 도어락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열쇠를 챙겨다니시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하는데, 분실시 교체비용이 20~30 만원사이로 청구됩니다.

2) 비자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에는 인터넷에도 잘 나와있겠지만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student visa, glp 의 경우 한학기 다녀오게 되므로 visa d 로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1)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발급받기 2)이태원 해밀턴호텔에 위치한 vfs global 에서 비자대행발급이용

1.의 경우에는 제가 발급받을 당시에는 예약이 5개월 밀려있었습니다. 또한, 컨택방법 자체도 까다로워 대부분 2)절차를 따르게 되실겁니다. 당연히 대행업체기에 수수료도 지불해야합니다. 제출시 구비해야하는 것은 여권, 신청서, 왕복항공권예약확인증,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규격 칼라사진, 체류기간내 숙소확인서, 이동과정증명서(필수는 아니지만 반려를 대비해 지참하세요), 보험가입증명서, 재정증명서 (만 24 세이하 월당 613.16 유로, 초과시 1110.26 유로),영문주민등록 등본, 입학허가서 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는 일정에 대해 정하는 것이 고민인 분이 많으실텐데요, 비자 발급후 위의 기재한 항공편, 체류기간내 숙소확인서, 이동과정 등은 취소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대부분 대학 수학기간 전후로 여행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우선은 가장 쉽게 비엔나 왕복항공편을 예약후(lot 항공 추천드립니다. 비즈니스석 이상의 경우 비행기 뜨기 전이면 언제든지 취소가능합니다. 환불도 전화연결시 빠르게 진행해주고요.) 취소하시면 좋아요. 아니라면 가는편 오는편 따로 하셔도 됩니다.

비자발급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한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모든 절차를 증빙해주시면 됩니다. 비엔나에서 그라츠로 이동하게 될때는 obb 기차를 이용하거나, flix 버스를 이용하시게 될텐데요, 한국에서도 위의 두가지업을 모두 갈수 있으니 무료취소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미리 예매하여 증빙서류에

첨부하시면 반려될 확률을 크게 줄일수있습니다. 숙소숙박기간이전에 도착하게 되거나 퇴실이후에도 돌아오는 항공편일정이 좀 남게 되는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나 부킹닷컴 무료취소도 잘 활용해보세요. 해당 숙박일정을 꼭 첨부하셔야 비자발급을 허락해줄겁니다.

보험은 학생보험이나, 여행자보험관련해서 오스트리아 visa d 발급규정 잘 체크해보시고 가장 싼 가격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후에 tugraz 에 도착하게 되어서도 건강보험을 최초 ot 때 안내해줄것인데, 이와는 별도로 비자발급시 여행자보험은 꼭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3. 입국 후

1) 거주지등록

해당 사항은 최초 ot 때 안내해줄것입니다. 그라츠 체류기간을 증명해야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갈때도 해당서류가 필요하니 꼭 발급해준 거주지등록 잃어버리지 마세요.

2) 핸드폰 개통, 계좌 개설

저는 hofer 마트에서 hofer hot 유심을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 유심교체핀 챙겨가시고, 안내해준대로 앱을 설치후, 유심을 바꿔주고 요금제를 구매해주면 됩니다. 최초 설치시 네트워크 불안정될 우려도 있으니, hofer 에서 파는 10 유로짜리 쿠폰을 함께 구매하셔서 선 등록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9 유로 옵션을 사면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데이터 24 시간 켜두어도 전혀 문제없으실테고요,(걸어다니면서 모바일 게임해도 괜찮은 수준) 유럽내 어느국가를 여행하더라도 로밍잘터집니다. 만약 로밍데이터 모두 소모하셨다면 동일하게 앱으로 추가 데이터 구매하심 됩니다. 그리고 요금제 결제시 자꾸 필요없는 옵션까지 포함시키려 한다면, 정기결제 유도를 할텐데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계좌는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트래블로그카드로 잘 쓰고 다녔어요.(한국 시간기준 23:30~00:00 환전안됨주의. 급한 일정있으면 미리 하나머니 앱으로 사전 환전하기는 필수) 분실을 대비하여 트래블월렛카드도 지참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현지에서 간식을 사먹거나 케밥(진짜 많이 사먹게 될거예요)을 먹게 될때 현금이 필요하니, 유로를 환전할 수 있다면 분할하여 잘 보관하세요(심지어 학교에서 연결되는 행사나 프로그램 등록시에도 현금만 받기도 합니다.)ATM 도 있지만, 그라츠 현지에서 이용하는 atm 은 수수료로 최소 5 유로를 부과하니 참고하여 이용하세요

4. 학교

1) 수강신청

최초 ot 때 안내해줄것인데, everytime 과 같은 studo 앱을 깔면 좋습니다. (ot 때 나눠주는 실물 쿠폰 qr 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추후 등록하세요) 수강신청은 tugraz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우리학교만큼 수강신청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수업마다 신청일정이 다르니까 잘 확인해서 까먹지말고 잘 수강신청하세요. 저는 재료공학이 학사가 개설되지 않고, 석사가 개설되어서 학사 전기공학으로 등록후 재료 석사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학부생이 듣기에 전혀 부담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 대학기준 3 ects(credits)은 서울대기준 2 학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업일정표 잘 찾아보시고 실제 강의시간도 잘 점검하여 추후 불이익없도록 잘 준비하세요

2) 시험신청

오스트리아에서는 최대 5 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Abcdf 인 우리의 등급과 다르게 12345 로 시험성적을 부과합니다. 시험은 최대 교환 1 년후까지 볼수있지만, 저희처럼 성적을 교환종료후 보고해야하는 경우, 교수님과 시험일정을 잘 조정하시고 제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시면 좋아요. 참고로 시험일정을 각 수업 최초 ot 때 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첫 수업일지 말고 참석하세요. 영어강의더라도 그냥 독일어로 진행해버릴수도 있으니깐요. 추후 일정조정해도 되겠지 생각했다가는 진짜 시험 못볼수도 있습니다(오스트리아 교수님들은 일과 휴식의 분업이 명백하고, 매일 길면 잘 안보십니다)시험신청은 수강신청과 마찬가지로 tugraz 웹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desktop 으로 접속하셔서 my courses 에서 보시면 됩니다.

USI sports courses 도 ot 때 안내해주시는데, 굉장히 싼 가격에 다양한 교내 구성원들과 스포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카포에라 수업도 신청하여 듣고, segeln course 를 신청하여 학기 중 크로아티아 punat 지역에서 일주일간 요트 세일링을 배우러 다녀왔었습니다.

3)german courses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시작 한달전 german course 가 열리며 본인의 독어레벨에 맞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환학생대상 강좌이기에 타학교와 다르게 서울대학교는 교환학생 학정인정 안해줍니다. 그러나, 해당 수업을 들으면 교환학생들과 친해지기도 쉽고 생활독일어를 익히기에도 용이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들어도 성적에 연연하지않고 편하게 수업을 들을수있습니다.

해당 수업을 들은 친구들끼리 먼저 친해져서 그룹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기에 들으면 여러모로 이득이 있는 수업입니다. German course 종료후 학기시작전까지 잠시 여행을 다녀와도 좋구요.

5. 생활

1) 교통

Graz 는 도로가 넓지도 않고 tram 또는 자전거가 주 교통수단입니다. Top ticket(기간제 무제한 교통권, obb 에서 구매가능)을 구매하여 이용하던 자전거를 이용하시면됩니다. 저는 willhaben(현지 중고거래 플랫폼, 앱설치가능)에서 자전거를 구매하여 이용하였는데, 오실때 되팔면 되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때 바퀴인치수 잘 체크하시고(도로에 트램선로가 설치되어있는데, 바퀴가 빠지면 자칫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교통법상 자전거가 무조건 차도로 달려야합니다.) 약간 주행시 체크사항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앞,뒤 라이트 등). 앞,뒤 라이트가 없다면 현지 다이소인 teddy 에서 구매가능합니다. 자물쇠도요. 헬멧은 참고로 필요없습니다. '

추가적으로 트램이 어느노선을 이용하던, jakominiplatz-hauptplatz 연결구간에서 앞뒤로 한정거장은 무료이용이 가능합니다. A 역-jakominiplatz-hauptplatz-b 역 같아요.

2) 쇼핑

Murpark 가 가장 인접한 아울렛이지만, jakominiplatz-hauptplatz 가 중심가이기에 이곳에서 h&m 과 같은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도 있으니 잘 이용해보세요. 저는 참고로 murpark 에 있는 tkmaxx 라는 가게를 애용했습니다(명품브랜드부터 저가 스포츠브랜드까지 다양한 아울렛 상품을 취급하는데, 열심히 탐색하시면 상당히 싼 가격에 좋은 의류를 구매할 수 있어요. 해당 브랜드는 유럽전역에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마트는 hofer, lidl, billa, spar 등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기준으로, 사용자 현재 국가 변경시 현지 마트 앱을 애플스토어에서 설치가능합니다. 다양한 혜택을 꼭 누리세요. 네 마트모두 유럽전역에 골고루 있는 마트입니다. Spar 는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비싸지도 않고,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취급합니다. Billa 는 유기농제품도 취급하고 퀄리티 좋은 상품을 많이 가져다놔요. 대신 가격이 비쌉니다. 오스트리아 마트들이 전일상품을 취급하는데, 고기류를 잘 노력하세요. 유통기한 전일엔 25 퍼, 당일엔 50 퍼할인 합니다.소고기를 돼지나 닭보다 싸게 먹을 수 있어요. BILLA 는 가격이 조금 더 있다보니 사람들이 잘 안가서 전일코너 상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라츠 마트는 그라츠 중앙역 spar 제외하면 일요일에 전부닫아서, 토요일 아침에 득템 확률이 올라갑니다. Lidl 도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수 있고, hofer 도 좋습니다. 심심하면 마트 돌아다니면서 그때 그때 할인 상품을 누리보세요. 참고로, pb 상품이 싸고 기본적인 빵과 파스타면, 계란등 기본식자재 가격은 네 마트 모두 동일해요.

6. 여행

여행일정을 한국에서 미리 안짜도 됩니다. 저 비행기 교환동안 22 번탔는데 다 가서 항공편잡았고, 진짜 싸게 잡았어요. 수강일정 확정되고 고민해보셔도 됩니다. 국제학생증(istic)이나, 현지 esn 커뮤니티 학생증 발급받아서 쿠폰받아서 예매하세요. 가서 짜셔도 되고, 라이언어어에 싼 항공권 많고 왕복 10 만원이면 이탈리아, 런던, 프랑스 다 다녀와요. 전에 기술한 obb 타고 바로 밀 이탈리아 내려가셔도 되고요, 현지에서 이동은 flix bus(유럽 웬만한지역 고속버스 지원합니다)이용하셔도 좋아요. 제가 방금얘기한 세 회사모두 학생 할인 해줍니다. Obb 는 jugend 권(청년)끓으면 기간내 할인가격 이용가능한데, 이게 합리적입니다.

두번만 타도 이득이에요. 어차피 여행하려면 그라츠공항아니라, 비엔나공항에서 이용하게 되실거니, obb 나 flix bus 두 옵션중에 싸고 시간 맞는거로 비엔나 다녀오세요. Flix 로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리아 등등 모두 그라츠에서 직행이용가능 하기도 합니다. 저는 혼자 여행 정말 많이 했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도움드릴게요

7. 마무리

한 학기동안 제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성을 점검해볼수있던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급급해하고 불안해하던 제 자신이었는데,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얘기하고, 처음보는 사람과 깊은 대화도 해보고 낯선 곳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외로움을 고독으로 선택해 바뀌어 가보는 과정속에서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공과대학과, 국제협력실 선생님들과,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공과대학 동창회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